

근대적 어머니역할의 제 양상

- 종합잡지 『太陽』의 관점에서 -

이 윤 주*

(e-mail: yoonju112@naver.com)

目 次

1. 들어가며
 2. 위생관리자로서의 어머니
 3. 교육자로서의 어머니
 4. 주부로서의 어머니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이란 사회문화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데 생물학적 성과 문화적 성 정체성이 일치해야만 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러한 성 정체성의 일치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회규범의 결과라고 설명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란 사실은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각인되는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가능¹⁾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 즉 사회적 규범으로 굳혀진 젠더질서의 확립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규정되어 탄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메이지 후반 성별역할분업으로 인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가정(家庭) 이데올로기가 대두되던 시기에 여성은 국가가 기대하는 이미지를 부여받

* 전북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수료, 일본문화전공

1) 고원(2005) 「육체와 주체」, 『역사와 문화』, 문화사학회 pp.115~116

고, 그 이미지는 규범화된 형태로 여성에게 인식되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고 근대적으로 재구성된 이미지를 창출해 갔다.

이러한 성 역할적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기준을 만들었으며, 여성에게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근대여성의 이상적인 이미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이미지 중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클로즈업 되었는데, 이는 여성을 전략적인 이미지로 작동케 한 근대국가가 국가적 의무로서의 근대적 어머니역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어머니역할의 기준을 당시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보급하고 각 인시킨 역할을 담당한 것이 미디어 특히 잡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안에서 표준화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그것을 이상화시켜 실생활에 도입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당시 발행된 잡지들 가운데 1895년에 창간된 종합잡지 『태양(太陽)』²⁾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공적(公的)인 영역의 장르로 구성된 『태양』이 가정 이데올로기가 대두되던 시기인 메이지 후반에 창간되어 약 7년간 가정란을 만들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가정란(家庭欄)에서 다루고 있는 논설의 관점에서 근대적 어머니역할에 대해 조명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잡지 『태양』은 시사, 문학, 과학, 지리, 종교, 해외사정, 군사란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종합잡지이다. 『태양』의 창간호 발행부수는 당시 광고에 의하면 28만 5천부에 이르렀다고 말하여지는데, 잡지독자의 절대 수 자체가 적었던 이 시기³⁾ 이러한 판매부수는 과히 놀랄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영향력에 비해 오늘날의 평가는 낮은 편이다.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1880~90년대의 『국민지우(國民之友)』와 1910년대의 『중앙공론(中央公論)』이라는 2대 잡지에 비해 사상적인 특징이 적다⁴⁾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역으로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 등의 연구는 『태양』의 기사분석을 통해 국민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어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잡지 『태양』은 1895년에 창간되어 1928년까지 약 30여년에 걸쳐 박물관(博文館)에서 발행한 종합잡지이다. 『日本商業雜誌』·『日本大家論集』·『日本農業雜誌』·『日本之法律』·『婦女雜誌』 등 다섯 잡지가 통합된 만큼 다양한 계층의 독자를 상정한 잡지로 출발하였으며, 매월 1~2회씩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창간호부터 300페이지에 이르는 거대 잡지형식을 취한 『태양』은 1895년 창간호부터 1902년 제8권 제7호까지 약 7년에 걸쳐 가정란을 개설해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永峯重敏(1997) 『雜誌と讀者の近代』,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P.102

4) 永峯重敏(1997), 前掲書 P.102

그러나 가정과 여성에 관한 연구는 부인문제를 중심으로 발행된 중간호만을 다루고 있어, 『태양』의 관점에서 당시 미디어가 나타내는 근대적 어머니역할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정란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의 역할에 관한 논설을 중심으로 『태양』이 언급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 특히, 근대적 어머니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위생관리자로서의 어머니

근대의 위생(衛生)이라는 관념은 서구인과 견줄 수 있는 새로운 신체로의 재생산에 관한 하나의 도구로 작용되었다.

일본사회 내부에서 근대적 위생의 정립은 최초의 비정부기구로서 1883년 5월에 조직된 일본사립위생회(日本私立衛生會)를 통해서인데 이 단체가 주도했던 위생 개혁 운동은 제국이 지향하는 위생적 근대화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일본사립위생회의 초대회장으로 일본 적십자사를 창설했던 사노 츠네타미(佐野常民)는 일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작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구미 국가들에 뒤진다고 보았으며, 사노(佐野)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조차 개인의 몸을 국가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로 파악하면서 국가의 富를 위해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았다.⁵⁾

이러한 근대국가의 취지하에 국민의 신체관리는 가정을 거점으로 작동되었으며, 건강한 몸 특히 아이의 신체는 국가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우량한 국민을 재생산하는 도구이자 메이지 국가의 의도에 순응하는 충량한 신민(臣民)의 몸을 만드는 것이 근대적 어머니의 국민적 의무로 규정되었다.

근대적 아이의 몸으로 재생산되기 위해 당시 가정 안에서 위생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으며, 가정 내에서 주체의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 즉,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어머니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역할 중 하나로 위생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이후 일본의 의료는 근대서양의학의 체제가 병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과는 달리 메이지 후반이 되어서도 병원망(病院網)이 확립되어 간 것이 아

5) 이종찬(2003)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형성과정(1868-1905)」, 『醫史學』, 大韓醫史學會 pp.36~37

나라, 압도적으로 개인의원(醫院)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근대일본의 의료제도는 자유개업과 영리성을 원칙으로 한 개업의제도(開業医制度)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며, 영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위생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도록 이루어졌다.⁶⁾

그러므로 메이지 시대 아이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위생관리는 가정의 주체인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위생을 담당하게 된 어머니는 위생에 관한 지식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습득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국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잡지라는 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자유롭게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 활자 미디어는 정보의 場으로 작용했음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남성독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신문보다는 잡지 쪽이 여성에게 친근한 매체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는 가정 이데올로기로 인해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부인잡지와 가정잡지가 비슷한 시기에 다양하게 발행되기 시작한 현상⁷⁾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부인잡지와 가정잡지 속에서 위생에 관한 기사가 정기적으로 다뤄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종합잡지 『태양』 또한, 가정란의 하부항목으로 위생에 관한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영역에 의학적, 위생학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계몽서 역할을 담당해 갔다.

잡지가 다루고 있는 위생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종합잡지 『태양』의 가정란의 위생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소아간호법(小兒看護法), 병아간호법(病兒看護法), 유아위생(幼兒衛生), 실지위생담(實地衛生談) 등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특히, 소아간호법과 병아간호법에 관한 논설이 주를 이루는데 이 논설의 저자

6) 山本紀世子(1999) 「戰時体制期における身体管理と家族一保建婦の役割を中心に」, 『園田學園女子大學論文集』 34(I)園田學園女子大學 pp.36~37

7)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에 의한 『가정잡지(家庭雜誌)』(1892년~1898년)의 발간을 시작으로, 『일본 내가정(日本乃家庭)』(1895년~1900년)(후에 『가정교육(家庭教育)』, 『일본의 가정(日本の家庭)』으로 변경), 『가정(家庭)』(1901년), 사카이 토시히코(堺利彦)에 의한 『가정잡지(家庭雜誌)』(1903년~1909년), 하니 모토코(羽仁もと子)와 하니 요시카즈(羽仁吉一)에 의한 『가정의 벗(家庭之友)』(1903년~1908년)와 『가정학강의(家庭學講義)』(1906년~1907년, 1908년에 『부인의 벗(婦人之友)』로 개칭)가 있다. 게다가 가정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에 관한 기사를 다룬 『여학잡지(女學雜誌)』(1885년~1904년), 『여감(女鑑)』(1891년~1908년), 『여학세계(女學世界)』(1901년~1925년)등도 있다. 拙稿(2012) 「근대 家庭과 여성 이미지의 형성」, 『日本文學 第55輯』, 韓國日本語文學會 P.220에서 재인용

세키 토요코(関とよ子)는 어머니가 보육과 간호법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평상시에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항목을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첫 번째가 아이가 소리 높여 울 때이다.

위에 병이 있는 소아는 울음소리가 높고 길며 화내는 어조를 띠고, 평평 눈물을 흘리며 양다리는 구부러胃쪽까지 올린다. 그리고 통증이 누그러지면 다시 다리를 펴고, 흐느껴 울면서 잠이 든다.

흉부의 흔충병 즉, 폐흔충, 기관지염, 늑막염 등의 징후가 있는 소아는 그 울음소리가 낮고 종종 울다가 멈추는데 길게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 통증은 매우 심한 것과는 달리 눈물을 흘리는 일은 많지 않다.⁸⁾

두 번째는 아이의 얼굴을 살피는 일로 세키(関)는 질병의 징후를 아는데 얼굴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뇌에 병이 있다는 징후는, 안색이 때로는 홍조를 띠거나 창백하다. 게다가 광선 혹은 음향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늘 소리 높여 울며 마음이 답답하고 체온이 높아져 잘 잤 수가 없다.⁹⁾

세 번째는 아이를 목욕시키는 일이다.

목욕은 소아를 청결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며, 또한 피부를 강건하게 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등 통틀어 소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1회 정도씩 温浴을 시키는 것이 좋다. 단, 그 온도는 화씨 97~98도로 하고 입욕시간은 대강 5분으로 하는 것이 좋다.¹⁰⁾

뿐만 아니라, 아이의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거나 목욕 후에는 따뜻하게

8) 関とよ子 「小兒看護法」, 『太陽』 1897年 4月 20日 第3卷 第8號 P.206

胃病ある小兒の啼泣は、其聲高く長くして且つ怒調を帶び、痕々涙を流して兩脚は之を屈めて胃部まで擧ぐ。而して其疼痛の緩むに従ひ、再び之を伸ばして、啜泣しつつ終に眠りに就く者也。

胸部の焔衝病即ち肺焔衝、氣管支炎、肋膜炎、等の徵候あるものは、其疼痛の甚しきに似ず、涙を流すこと稀なるものなり。(번역은 필자의 줄역에 의함, 이후 서명 생략)

9) 関とよ子 「小兒看護法」, 『太陽』 1897年 4月 20日 第3卷 第8號 P.207

腦病の徵候あるものは、顔色時として潮紅となりました蒼白となり。かつ光線或は音響に感動し易くして、常に啼泣煩躁して眠らざるものなり。

10) 関とよ子 「小兒看護法」, 『太陽』 1897年 4月 20日 第3卷 第8號 P.207

浴湯は小兒をして清潔にし爽快ならしめ、また其皮膚を強壯にして、感冒を予報するなど、凡て小兒の健康を保つに最も緊要の事なり。故に日々一回位宛温浴せしむるを可とす。但し其温度は大抵九十七八度とし入浴の時間は凡そ五分時間にして宜しかるべし。

모포로 감싸 체온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아이의 대소변에 관한 사항으로 세키(関)는 아이의 대소변을 확인함으로써 아이에게 맞는 음식물의 섭취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섯 번째로는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 언급하는데, 아이가 울거나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혼드는 등의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며,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어머니가 씹어서 먹여주거나 입감을 붙여 음식을 식혀주는 등의 행위는 대단히 불결해서 오히려 신선한 음식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¹¹⁾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키(関)는 아이의 소화불량증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유(母乳)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유는 아이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어머니 자신 스스로의 영양과 감정까지 통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어머니는 시종일관 정신을 안정케 하고 과격한 감정을 피해야만 한다. 음식은 되도록 영양분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쉬운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곧 소아를 소화불량증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때 어머니는 모름지기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신과일 또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또는 과일 등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양을 가늠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소아도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것은 가정 안에서 어머니로 인해 근대화되어 재생산된 아이의 신체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어머니의 몸 또한 근대국민에 걸 맞는 몸으로 재탄생되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푸코는 신체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체에 행사하는 테크닉 중 위생의 관념 또한 각양각색의 권력의 테크닉에 의해 훈육되어지는 것¹³⁾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머니의 신체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적(公的)인 영역으로 각인되어 어머니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훈육된 신체를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건강은 곧 아이의 건강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어머니 자신의 위생 또한 중요시 하도록 요구되어졌다.

또한, 세키(関)는 모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우유를 통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특히 청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11) 關とよ子 「病兒看護法」, 『太陽』 1897年 5月 20日 第3卷 第9號 P.207

12) 關とよ子 「病兒看護法」, 『太陽』 1897年 5月 20日 第3卷 第9號 P.208

母は終始精神を安靜にして過激の感動を避くべく、食物はつとめて栄養分に富みたる消化し易きものを選び、…不消化なる食物は忽ち小兒をして此の消化不良症に陥らしむるものなり、斯る時は生母は宜しく注意に注意して酸果若しくは消化し易からざる食物または果物など攝取することなく、最も自分の栄養をはかれば、自然に小兒をも治するを得べきなり。

13) 카롤라인 라마자노클루 외, 최영 외 옮김(1998) 『푸코와 페미니즘』, 東文選 P.295

우유로 양육하는 소아에게서 소화불량증에 걸리는 일은 때때로 있는 일로, 이것은 보통 어머니나 시녀들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우유는 반드시 아침에 찬 신선한 것을 20~30분간 데워 끓여 소화되기 쉽게 식혀 두어, 끼니때마다 그 분량만 조금씩 따뜻하게 해서 사용하고, 그릇, 우유병, 숟가락 등은 그때그때 일일이 세척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우유성분이 우유병 안에 부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결한 분자가 소아에게 흡수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식후 반드시 소아의 입안을 닦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¹⁴⁾

이처럼 세키(関)는 어머니의 청결함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면 아이에 대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어머니에게 있어 청결이라는 규범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주요한 책무인 것이다.

세키(関)는 이외에도 소아콜레라의 간호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콜레라의 간호법은 이제 와서 자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5세 이하의 소아에게 가장 위험한 병으로 만약을 위해 그 일부를 설명하려고 한다.

본 병의 징후가 있는 소아는, 매일 1회씩 3분간 내지 5분간 몸을 수건으로 감싸 溫浴시킨 후,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게 한다. ... 소아가 감기에 걸리거나, 발진이 있거나, 대부분의 질환에 매일하는 온욕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는 결국 대부분의 생활기능은 모두 피부와 관련이 있고 게다가 목욕을 통해 이를 건강하게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신장, 소화관 및 소화기관의 작용을 증진시켜, 음식의 同化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음식은 患兒가 아직 수유기 중에 있다면, 모유 외에 일절 다른 음식을 금해야만하고, 이미 이 시기를 벗어난 아이에게는 소량의 죽과 우유를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죽에는 소고기 국물을 섞어주고, 우유에는 석회수를 더해주면 더할 나위 없다.¹⁵⁾

14) 關とよ子 「小兒看護法」, 『太陽』1897年 6月 5日 第3卷 第11號 P.116

牛乳にて養育する小兒にして、消化不良症に罹ること往々にして是あり、こは通例其母及び侍女等の不注意より起るものなれば、牛乳は必ず朝搾りの新鮮なるものを二三分間之を煮て沸騰せしめ、消化し易からしめたる後之を冷し置きて、食毎に其分量丈少し宛温めて用ひ、器皿、吸乳餅、匙等は其度毎に一々之を洗滌すべし、然らざれば腐敗したる乳分は毎に吸乳管内に附着したるが爲め、自然に不潔の分子をも小兒に吸收せしめて、是より大害を起こすことあり、また食後小兒の口内は必ず之を洗ふことを怠るべからず。

15) 關とよ子 「小兒看護法」, 『太陽』1897年 8月 5日 第3卷 第16號 pp.125~126

虎列刺病の看護法は今更詳に説くまでもなく、五歳以下の小兒に在りては最も危険なる病症なれば、念のため其一斑を説くべし。本病の徴候ある小兒は、毎日一回宛三分間乃至五分間支體をタオルにて包みしまゝ温浴せしめて後、安靜に睡眠せしむべし。...小兒とりては感冒にまれ、發疹症にあ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키(関)는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목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즉,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있었다.

세키(関)이외에도 가정란의 위생항목에 「유아위생의 한 구절(幼児衛生の一節)」이라는 글을 게재한 미시마 미치요시(三島通良, 1866~1925)는 메이지·다이쇼 시대의 의학자로 학교위생의 선구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1891년 문부성에 위촉되어 전국 학교의 보건위생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위생학에 있어 획기적인 조사였다. 미시마(三島)는 위생에 관한 서적을 많이 저술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의 임무(はゝのつとめ)』는 아이의 위생에 관한 사항을 어머니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모유라든지 유모에 대한 어머니의 임무, 우유로 양육하는 아이의 인공양육법, 아이의 음식물, 의복, 청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의 주의사항 및 아이의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¹⁶⁾을 담아 위생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시마(三島)는 『태양』에서도 어머니역할에 초점을 맞춰 가정의 주체인 어머니와 함께 위생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연구해서 가깝게는 현재의 아이를 위해, 멀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이 건강하기를 희망한다며 위생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소아일 때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면 그 부족은 어른이 되어서 점점 크게 나타난다. … 어린 시절 병에 걸리면, 그 해는 어른이 되어서까지 여러 가지 장애를 초래한다. 그런데도 어쨌든 어른이 되어서 보통의 인간으로 성장했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일 이들이 병 때문에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면 그 손실은 실로 적지 않게 된다. … 이는 한 개인에게도 막대한 손실이지만, 국가입장에서 보면 실로 놀랄만한 손실이다. 이 소아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각각 생산력이 되어 나라의 부를 만들어야하는데 사망한다고 하면, 생산력을 만들어내는 자본의 손실을 가져오고 인구는 감소한다. 아무리 말해도 불이익한 일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소아의 사망비례는 철저히 조사하는데, 이것이 많다는 것은 국가멸망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식 있는 사람들은

れ、大抵の病氣には日々の温容より緊要なるはなし。これ畢竟するに凡ての生活機能は皆皮膚に關係せるが故に浴湯によりて之を健全ならしむる上からは、血液の循環はいふまでもなく、腎臟、腸管、及消化機の作用は益進みて、常に食物の同化を補ふのみならず、幾多の疾病を未然に予防し得ればなり。食物は患兒の尙哺乳期中にあるものならば、母乳の外一切他の食物を禁ずべく、既にこの期を脱したる者には少量の粥と牛乳とを與ふべし。而して粥には牛肉汁を混ぜ、牛乳には石灰水を加へて與へば、最良なるべし。

16) 三島通良(1893) 『はゝのつとめ 子の巻』, 博文館 pp.1~4

매우 걱정하는 것이다.¹⁷⁾

『태양』에서 세키(関)가 위생에 관해 근대적 어머니역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면, 미시마(三島)는 위생의 목적에 대해 강조하면서 아이의 위생이 야말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근대의 아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원동력이며, 중요한 자원이다. 근대 일본에서 위생의 관심은 국민 개개인의 신체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공적인 국민으로서의 근대적 신체로 국가발전과 연결 지어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근대가족의 형태가 근대국민국가를 이루는 초석의 역할이 되었던 것처럼, 가정이라는 범주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위생을 책임진 것은 근대국가가 어머니에게 부여한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다.

3. 교육자로서의 어머니

국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메이지 정부는 어머니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을 부과하는 정책과 함께, 19세기 구미에서 탄생한 교육하는 어머니에 관한 서적을 계몽지식인들을 통해 번역·소개하였다.¹⁸⁾

여자교육진흥의 원인 중 하나는 청일전쟁의 체험이다. 근대국가의 제국적 의도는 건전하고 강한 인간을 보다 많이 재생산하여 노동력을 증강시키고, 국력을 강화 하는 것이었다. 이에 어머니의 임무는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국가에 필요한 인재와 충량한 국민을 생성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우량한 국민을 재생산 하는 역할이 국민적 의무로 부가되었다.

이렇게 근대의 아이라는 발견은 근대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아이의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어간다. 이제 더 이상 아이의 존재가 이에(家)나 무라(村)의 아이라는 관점이 아닌, 국가의 아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이의 교육을 담당할 어머니의 위치는 여자교육의 목적

17) 三島通良 「幼児衛生の一節」, 『太陽』1898年 1月 1日 第4卷 第1號 pp. 162~163

小兒の間に充分の養育を盡さざるときは、其不足は大人となりて愈々大きくなる、…幼き時分に病氣に犯されると、其害は大人となりてまで、諸々の妨害を致す。それでもまだ兎に角大人となりて、普通の人間と育ち上がるものは可なり、若し此等病の爲に幼稚にして死亡せんか、其損害實に少なからざるなり。…之を一個人の損失としても、隨分のものであるが、國家の上より見れば、實に驚くべきものが、死亡するとすれば、生産力を生ずべき資本の、損失となる、人口は減少する、何とも云へぬ不利益の事である。それで何れの國でも小兒の死亡比例と云ふものは嚴重に調べる、此の多いところは、國滅亡の徴候として有識の人は大層に心配するのである。

18) 정진성(1999) 「현대일본의 모성 인식」,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선서 pp.246~247

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식의 도입은 근대적인 학교교육체도가 개시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비중이 증가해 가고, 가족 안에서 교육의 담당자가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전환해 가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근대화 이전에는 가업(家業)을 계승해야만 하는 아이의 교육은 아버지의 주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화와 동시에 남성은 공무원, 교원 등 근대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버지로부터 가업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아이의 교육적 의미는 희미해져 갔다.¹⁹⁾ 그 결과 가정 안에서 아이의 양육을 담당한 어머니에 의한 아이의 교육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정교육에 관한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은 『태양』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교육이라는 것, 흔히 이것을 家事, 家政과 함께 단순히 아이의 어머니인 주부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는 극히 지나친 편견이다. 물론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그 책임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녀의 교육은 양친모두 동일하게 중대한 임무를 맡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대체로 나랏일에, 혹은 학술과 기술에 거의 대부분을 가정 밖의 일로 분주하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家政을 정리하는 주부 또는 어머니가 두 사람 몫의 교육을 아이에게 해주어야만 한다. …가정교육을 완벽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一家의 협동사업으로 삼아 담당자인 어머니가 전심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할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아이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세계와 우열을 겨루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일하는 틈을 타서 다시 한 번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²⁰⁾

우선, 쓰카모토 하마코(塚本はま子)는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쓰카모토(塚本)는

19) 小山靜子(2002) 『こどもたちの近代』, 吉川弘文館 pp.101~102

20) 塚本はま子 「家庭教育は一大協同事業」, 『太陽』1896年 10月 5日 第2卷 第20號 pp.96~97

家庭教育を説くもの、轍もすれば、此を家事、内政と共に、單に其子の母なる主婦の責任とのみ思へるものあれど、こは極めて僻見ならん。もとより母親が、其子の教育につきて、責任ある事はいふまでもなく、且其責任の中心なるべき事も争ふべからず、何となれば、子女の教育は兩親等しく、重大なる任務を負ふべきも、父親は多く、或は國事に、或は學術技藝に大概家外の奔走に忙しき者なれば、家に留りて家政を整理する主婦は、又親として二人分の教育を、其子に施さざるべからざればなり。…家庭教育を完全にせんと欲せば、宜しく此れを一家の協同事業とし、當局者なる母親が銳意熱心するのみならず、父親も亦兒童が後來、我國民の一分子として、世界と強弱を争ふの、一原力となるべき事を悟らば、公務の余暇又一考を煩わして可ならん。

아이에 대한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장래 아이가 성장해서 공적인 영역으로의 진출을 돕기 위한 어머니의 조력자 역할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공적 권력 세계 바깥의 사적 영역으로 간주된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임금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적은 권력, 자원에 대한 낮은 통제력을 수반²¹⁾하게 되므로 임금 없는 직업으로서의 근대적 아버지역할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지는 다른 논설에서도 드러나는데,

무릇, 지금 사회에서 특히 가장 필요한 것은, 소아를 양육하고 지도해야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학교에서보다도 오히려 가정에서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훌륭하게 그 자녀의 성품을 바르게 하고, 게다가 장래 세상에 나가 해야만 하는 사업의 기초 등을 어린 시절부터 教導하는 힘은 가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실로, 사회공익을 위해 아이를 가르치고 기르는 일은 하늘로부터 맡겨진 일이므로 마음가짐을 결코 한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사회공중을 위해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 책임은 부모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장래 갖가지 일에 관계를 가질 때에는 어머니야말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소아에게 매사 다정다감하고 시대상으로 그 성품을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²²⁾

무카이 이쿠(向井いく)도 쓰카모토(塚元)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하늘이 준 부모의 사명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어머니가 가진 힘에 주목한다. 이는 어머니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모성(母性)이라는 관점이다. 어머니가 가진 모성은 근대적으로 재생산 된 형태를 띠며 변화해 갔는데, 사회구조적으로 유도된 기준에 의해서 재창조 되었다. 이 시기 어머니에게 요구된 힘,

21) 낸시 초도로우, 김민예숙·강문순 옮김(2008) 『모성의 재생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61

22) 向井いく 「泰西家庭教育」, 『太陽』 1898年 1月 20日 第4卷 第2號 pp.159~160

凡そ、今、社會に於いて、殊に、尤も必要なるは、小兒を育て導くべき、方法なりとぞ云ふべきなる。そは、學校に於けるよりも、寧ろ、家庭に於てこそ、いと肝要なることなりけれ。何となれば、能く、其子女の性質を正し、且つ、將來、世に立ちて、取るべき事業の基礎等を、幼少の内より、教導する力は、家庭を除きては、また、決して、他に得可らざるなり。…實に、社會公益の爲に、其兒を教養すといふことを、天より委ねられたるものと、心得、決して、一箇人のものとして、考へずして、全く、社會公衆のためなりと思ふべきなり。而して、此責任は、父母共に同じと雖も、其が、將來百般の事に關係を有するに至りては、母ぞ、尤も大なる。如何となれば、小兒の、尤も、事物に感じ易き、時代に於て、其性質を、良き方針に導くことは、唯、母の力のみによるものなればなりけり。

즉 모성은 참다운 교육을 제공하는 어머니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있어 중요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교육 활동의 영역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만이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이다.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기호(嗜好)를 잘 알아야 하며, 계몽된 본능을 갖고 아이들을 잘 살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방법도 강구해야 하는데 어머니만이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세심한 여교사라도 이러한 본능을 알지 못하며, 이러한 직감이나 여성의 본능이 결여된 남자는 말할 것도 없다고 보는 인식²³⁾은 당시 시대상으로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무카이(向井)는 가정교육에서 아이의 뇌력(腦力)을 기르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어머니에게 다양한 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아를 교육시킬 때에는 뇌력 즉, 智, 情, 意 이 세 가지에 대해 강고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이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을 관장하는 것과 같이 뇌, 또는 뇌의 어떤 부분은 생각, 희망, 정 등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된다. 학자 중에도 뇌의 어떤 부분이 각각의 기능을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제각기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여하튼. … 뇌를 연구하는 일은 생리학자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인 사람도 당연히 강구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작용을 행하는 근원인 뇌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롭고 완전할 때에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으므로 勉勵, 休息 및 養生 등을 잘 지키도록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²⁴⁾

이와 같이, 어머니에게 과학적 지식을 갖춘 지식을 기대할 만큼 근대적 아이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였다. 이는 어머니에게 아이에 대한 단순한 애정만을 원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당시의 교육자들도 이와 의견을 같이 한다.

메이지·다이쇼시대 여자교육 진흥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는 교육자 시모다 지로(下田次郎, 1872~1938)는 자신의 저서에서,

23) エリザベート・バダンテール, 鈴木 晶譯(1991) 『母性という神話』, 筑摩書房 pp.312~313

24) 向井いく 「家庭教育」, 『太陽』 1898年 2月 20日 第4卷 第4號 P.133

小兒を教育せんとするには、腦力即ち、智、情、意の三つのものに強固確實ならんことを要す。而して、目のすべての物を見ることを司るが如く、腦、又は腦の或部分に於ては、孝、望、情などのごとき、働きを爲すものなり、學者中にも、腦が或部分の働きを爲すことにつきて、各説を異にするものあれども、兎まれ。…腦のことを研究するは、一人、生理學者のみに止まらずして、父母たる人も、宜しく購求すべきことなりと知るべし。如何となれば、凡ての働きをなす、基たる腦の各部分、相調和して、完全なる時は、身體に健康を與ふること必然にして、勉勵、休息、及び、養生等よく保ち行はしむることを得るべし。

현모란 무엇인가, 현모의 첫 번째 자격은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는 일이다. 현모는 좋은 교육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페스탈로치가 말했듯이,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는 가정이고, 가장 좋은 교육자는 어머니이다. ...특히 유아기에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여자교육의 목적은 현모가 되기 위해 정신 및 신체의 준비를 여자에게 시켜야한다. ...그 준비는 상당히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학술, 즉 생리·위생·육아·가사·교육·심리 등의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고, 체조·운동도 필요하다. 그 밖에 태교도 필요한데, 여자는 교육받는 사이에 이미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의 교육은 아이가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즉 아이의 교육은 어머니가 될 사람의 교육에서 시작되는 것이다.²⁵⁾

시모다(下田)는 여자교육의 목적은 현모(賢母)가 되기 위한 교육과 양육에 관한 소양을 배우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시모다(下田)는 아이를 낳기 전의 여성의 신체와 교육자체를 현모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곧 어머니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교육은 남성과 동등한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대 사회규범에 적합한 어머니역할의 수행을 다하기 위한 도구로 행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의 정도에 따라 아이의 교육의 질도 달라진다는 인식 속에서 태교(胎教)의 중요성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태양』에서도 태교에 관한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우선, 간자와 신사쿠(寒沢振作)는 서양제국과 중국에서도 태교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칭송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부모들이 보통 아이가 5,6세가 되어야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간자와(寒沢)는 그때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이미 늦으며,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해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작²⁶⁾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생리(生理), 심리(心理)에 관한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태교 또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태아를 위해 좋은 것을 많이 견문하고 현명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매일 절에 참배해

25) 下田次郎(1904) 『女子教育』, 金港堂 pp.282~287

賢母とは何であるか、賢母の第一の資格は子供を良く教育する事である、賢母は良教育者でなくてはならぬ、ペスタロッチの云ふたように、最も良い教育所は家庭であつて、最も良い教育者は母である。…殊に幼時に於ては母が最も重要な教育者である、……女子教育の或る目的は、良妻賢母たるの精神上並に身体上の準備を女子に與へることである。…其準備はなかなか難しい、夫れには種々の學術、即ち生理、衛生、育兒、家事、教育、心理等の知識と技能を要し、体操、運動も必要である、此外胎教の必要がある、女子は教育さるゝ間に既に母たるの準備をしておかねばならぬ、子の教育は子の生れる二十年前から始まるといふ人もある、即ち子の教育は母たる者の教育から始まるとの事である。

26) 寒澤振作 「小兒養育談」, 『太陽』 1898年 6月 5日 第4卷 第12號 P.175

고승(高僧)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²⁷⁾ 조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앞서 서술한 시모다(下田)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태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될 여성의 교육적 지식은 아이를 잉태하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메이지 시대 교육자였던 오무라 진타로(大村仁太郎, 1863~1907) 역시 어머니가 가진 교육의 정도에 무게를 두어 아이의 성공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의 교육은 어머니가 가진 교육의 정도에 따라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를 골똘히 궁리해 교육적 수단을 생각해내고 스스로 최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의해, 아이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어머니는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어머니의 애정이란, 대체로 맹목적이어서 그 아이를 객관적으로 비판할 관찰력을 어머니에게서 빼앗기 때문에, 교육상 적지 않은 방해물을 하는 것입니다.²⁸⁾

애정이 아이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오무라(大村)의 견해는 이제 더 이상 애정만 주는 어머니의 존재는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근대적 어머니의 역할은 아이에게 애정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교육의 정도에 따라 이상적인 어머니상, 현모라는 이미지로 규범화 되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국가가 어머니에게 단지 아이를 낳아 사랑으로 기르는 모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가진 모성을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모성은 그 사회가 가진 규율과 교육을 통해 습득된 규범이었으며,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현모라는 이미지는 여성에게 억압된 굴레를 씌어 이상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여자교육에 관한 관심의 대두는 여성 자신에 대한 개발이라기보다 근대적 아이를 재생산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한정된 지식을 여성에게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7) 敲玉女史 「妊婦の心得」, 『太陽』 1899年 6月 5日 第5卷 第12號 pp.139~140

28) 大村仁太郎(1905) 『家庭教師としての母』, 同文館 pp.20~21

子供の教育は、母親の有する教育の程度に應じて成功するものであると考へるのであります。何となれば、母親にして智識が多ければ多い程、種々工夫を凝して教育的手段を案出し、自ら最良と認めたる方法によって、子供を教育することが出来るからであります。智識に乏しき母にあっては、遺憾ながら此の事が出来ません。…元來母の愛情なるものは、概して盲目的なもので、其の子を客觀的に批判する觀察力を母親より奪去る爲め、教育上少しからざる妨害を爲すものであります。

여성의 교육목적은 근대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근대적 어머니역할의 기준인 교육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행해지게 된 것이다.

근대의 여성들은 어쩌면, 근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주어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규제해 왔던 것이다. 근대적 어머니역할에 대한 이러한 규범적 기능은 가정 안에서 어머니를 통해 딸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훈육되었을 여지는 충분하다.

4. 주부로서의 어머니

일본어에서 주부(主婦)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속학 등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한 집안의 가사(家事) 및 며느리와 고용인들을 총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가정주부개념으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생산에서 분리되어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를 의미²⁹⁾한다.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후자의 개념인 가정주부는 성별역할분업으로 탄생한 근대의 산물이며, 근대적 어머니역할의 총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가사를 전담하게 된 주부의 임무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우선, 주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임무로 부여된 것은 가계(家計)를 담당하는 일이었는데 비생산활동에 놓여진 주부라는 위치에서 어머니에게 근검절약하는 생활방식은 반드시 갖춰야하는 소양이었다. 이러한 생활태도가 장차 주부가 될 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근검의 덕이 누구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란 점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특히 부인에게 필요하다. ...학교 수업에서 직접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험 있는 어머니가 그 슬하의 딸을 기를 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에 노력과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이다.³⁰⁾

29) 瀬地山 角(1996) 『東アジアの家父長制』, 勁草書房 P.51

30) 塚本濱子 「婦人の勤儉と其母親」, 『太陽』 1896年 3月 20日 第2卷 第6號 pp.219~220

勤儉の徳が何人にも欠くべからざるは論ずるまでもなけれど特に婦人には必要なる ...學校の課業に於いて直接に養ふべき事にあらずたゞ經驗ある母親が其膝下に女兒を育つる時見やう見まねとやらんにてははずをたらずの間に勞力と時間と金錢とを浪費せざる方法を自得せしむるに在るなり。

주부의 근검에 관한 소양은 다이쇼 시대 이후, 남편의 봉급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계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정의 경영자로서 더욱 중요시 되었다. 그래서 당시 합리적인 가계생활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가계부(家計簿)가 창안되고 주부에게 이를 기입하도록 제창되기도 하였다.³¹⁾

또한, 당시 『태양』에서는 가정 안에서 어머니에게 양계(養鷄)를 권장하거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후지이 오우미(藤井淡海)는 아이에게까지 양계에 대해 가르칠 것을 조언하고 있었다.

독일의 아이는 6세가 되면 나무 심는 것을 배우고, 아메리카합중국의 아이는 10세가 되면 창업할 수 있는 자립심이 있다. 실로, 독일의 산림이 세계제일이고, 아메리카합중국의 부강독립이 천하에 뛰어난 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이는 장래의 국민이 되니 나라의 氣風을 만들기에는 우선 아이의 기풍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애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근면하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보다 빨리 자립해 독립할 수 있는 정신을 왕성하게 하기에는 닭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³²⁾

이는 메이지 시대 가계비의 충족을 위해 주부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동형태로 양계와 양잠(養蠶)을 권장한 것은 가계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뿐 아니라 아이가 일찍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주부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어머니 자신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가정에서 주부인 어머니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이다. 『태양』의 가정란에는 계절요리라던가 서양 요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개는 물론, 주부가 가져야 할 요리의 마음가짐에 관한 기사도 담고 있는데,

31) 가계부를 쓸 것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하니 모토코(羽にもと子)였다. 하니(羽)가 1903년에 창간한 『가정의 벗(家庭之友)』이 1908년에 『부인의 벗(婦人之友)』으로 개칭되면서 여성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일상사부터 풀어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가계부를 기입하는 것이었다. 김영숙(2010) 「일본 근대 소비자의 탄생, 셀러리맨 가정의 생활과 교양」, 『梨花史學研究』 pp.34~35

32) 藤井淡海 「小供の養鷄」, 『太陽』1896年 1月 20日 第2卷 第2號 pp.135

獨逸國の子供は、六歳にして木を植うるとを教ふる、亞米利加合衆國の子供は、十歳にして起業自立の心がけあり。實に、獨逸の山林は、世界第一にて、合衆國の富強獨立が天下に優れたるは、其所謂あり。小供は、將來の國民なれば、國の氣風を造るには、先づ小供の氣風を養ふを大切とす。扨て、小供に慈愛の心を起させ、又勤勉にして貯蓄する習慣をつくり、早くより自助獨立の精神を盛んにするには、家鷄を飼ふとを教ふるを一つの良法とす。

일가를 다스림에는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매일의 반찬에 관한 요리공부는 家政에 관한 공부로 경제에 관한 공부보다 위생, 쾌락에 관한 것보다 더 주의해야만 하는 공부이다. ...반드시 산해진미에 번거로운 요리법이 아니더라도 무나물도 괜찮은 요리법의 양념에 의해 맛없게 되기도, 맛있게 되기도 하므로 그 맛을 즐겨 가족모두에게 음식을 나눌 때, 적잖이 유쾌함이 더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숙지해야 하는 것이다.³³⁾

이러한 기사를 게재 한 의도는 당시 가정단란(家庭團欒)을 지향한 가정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주부에게 요리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요리에 관한 공부를 통해 가정이 더욱 화목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사를 책임지는 일은 여성이 근대이전부터 일반적으로 행해 온 역할이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가정 내의 담당자라는 사회적인 틀 속에서의 역할로 부여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행해지기를 원했다. 이것은 당시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의 특징이 여성의 역할관과 주부상을 형성하고 전달함과 동시에 주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태양』도 마찬가지였는데, 가정란에서 폐물이용법(廢物利用法)이라던가, 우유의 취급방법, 세탁 방법 등 실용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는 목적은 여성이 주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입장은 다나하시 아야코(棚橋絢子, 1839~1939)의 논설에서 잘 드러난다.

여자가 일가를 다스리는 것은 힘든 일이어서,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쉴 틈이 없다. ...여자는 한 집안을 다스려 가는 것이 본래의 직무이므로 책만 읽는다고 하면 매우 곤란하다. ...일가의 아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이나 책만 읽고 있지 말고 오로지 가사에 마음을 써, 밤늦게 자더라도 정취 있는 옛 성현의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 읽어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33) 作者未詳 「料理の工夫」, 『太陽』1896年 10月 20日 第2卷 第20號 pp.105~106

一家を治むるには、何事にも工夫なかるべからず、…而して日々の總菜にも料理の工夫は、いと注意すべき家政上の工夫にて、經濟上より、衛生上より、特にまた快樂の上より、これに注意すべきなり。…必ずしも山海の珍味に、面倒なる料理法とはいはじ、菜大根にしても、一寸したる料理の仕塩梅によりて、まつくもなり、甘くもなり、其甘きを賞美して、家族共に食を頌つの中には、尠からざる愉快の添へらるゝものあるとは、言ふを俟たずして、家庭に在らるゝ人々の、熟知せる處なり。

학문으로 생각해서 날마다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³⁴⁾

다나하시(棚橋)는 소학교 교사를 거쳐 고등여학교의 교장까지 역임한 여성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전념해야하는 주부가 여성의 본분임을 망각하고 책만 읽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면서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고상한 업무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모두 장차 주부가 되는 것이 여성의 본분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성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부여받게 되면 그와 동시에 여성의 위치는 고착화 된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여성은 사회와 국가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국가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³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표준적인 여성상으로 각인시키는 과정은 매우 중요했다. 당시 근대국가가 기대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보급하기 위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활자 미디어는 정보의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간 것이다.

5. 나오며

본 연구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여성의 지위와 위치가 가정이라는場に 우선시 되는 사회적인 규범적 이미지가 근대에 확립된 가정 이데올로기와 여성을 국민화 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결과라고 보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여성의 이미지 중 본고에서는 어머니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했는데, 근대국가의 관리 장치로서 작용한 가족을 재생산하는 역할은 가정의 주체가 된 여성 즉, 어머니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메커니즘 속에서 ‘어머니의 힘’에 대한 환상을 형성해 근대적 어머니역할을 창출해 갔으며,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현모라는 이미지로 이상화 되어 ‘훌륭한 어머니’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된 근대적 어머니역할은 교육으로 주입되고,

34) 棚橋絢子 「主婦の任」, 『太陽』 1897年 10月 20日 第3卷 第21號 pp.120~121

女と云ふものは一家の内を治むるのは骨の折れるのであつて、事細かく爲やうと思へば閑のあるものではない、…女は一軒を治めて行くのが本來の職務であるから、書物ばかり讀んで居て貰つても甚だ困る、…一家の家内たるべきものは、日に二時間も三時間も書物なかり讀んで居ないで専ら家事に心を用ひ、夜分寝てからでも、味ある古人の語をば一句二句讀みこなして其れを學問となし、日々忘れぬ様にするが肝腎であらうと思ふ。

35) 조지 L.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2004)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P.160

훈련된 것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활자 미디어였다.

이는 당시 『태양』 뿐만 아니라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부인잡지와 가정잡지가 무수히 발행되기 시작한 사회적 정황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어머니역할의 기준을 만든 사회 장치로서 잡지라는 미디어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이미지는 근대의 가정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탄생되었으며, 어머니에게 당연시 되는 모성의 관점에서 부각되어 정립되었다.

이렇게 근대에 탄생한 어머니역할의 기준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표준적인 이미지로 작용하여 현대여성의 또 다른 기준과 공존해 가고 있다. 즉, 어머니 역할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변용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参考文献】

고원(2005) 「육체와 주체」, 『역사와 문화』, 문화사학회 pp.115~116

김영숙(2010) 「일본 근대 소비자의 탄생, 셀러리맨 가정의 생활과 교양」, 『梨花史学研究』 pp.34~35

낸시 초도로우, 김민예숙·강문순 옮김(2008) 『모성의 재생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61

이윤주(2012) 「근대 家庭과 여성 이미지의 형성」, 『日本語文学 第55輯』, 韓国日本語文学会 P.220

이종찬(2003)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형성과정(1868-1905)」, 『医史学』, 大韓医史学会 pp.36~37

정진성(1999) 「현대일본의 모성 인식」,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신서 pp.246~247

조지 L.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2004)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P.160

카롤라인 라마자노글루 외, 최영 외 옮김(1998) 『푸코와 페미니즘』, 東文選 P.295

エリザベート・バダンテール, 鈴木 晶訳(1991) 『母性という神話』, 筑摩書房 pp.312~313

大村仁太郎(1905) 『家庭教師としての母』, 同文館 pp.20~21

小山静子(2002) 『こどもたちの近代』, 吉川弘文館 pp.101~102

下田次郎(1904) 『女子教育』, 金港堂 pp.282~287

瀬地山 角(1996) 『東アジアの家父長制』, 勁草書房 P.51

- 永峯重敏(1997) 『雑誌と読者の近代』, 日本エディターズスクール出版部, P.102
- 三島通良(1893) 『はゝのつとめ 子の巻』, 博文館 pp.1~4
- 山本紀世子(1999) 「戦時体制期における身体管理と家族一保建婦の役割を中心に」, 『園田学園女子大学論文集』 34(I) 園田学園女子大学 pp.36~37
- 敲玉女史 「妊婦の心得」, 『太陽』 1899年 6月 5日 第5巻 第12号 pp.139~140
- 寒沢振作 「小児養育談」, 『太陽』 1898年 6月 5日 第4巻 第12号 P.175
- 関とよ子 「小児看護法」, 『太陽』 1897年 4月 20日 第3巻 第8号 pp.206~207
- _____ 「病児看護法」, 『太陽』 1897年 5月 20日 第3巻 第9号 pp.207~208
- _____ 「小児看護法」, 『太陽』 1897年 6月 5日 第3巻 第11号 P.116
- _____ 「小児看護法」, 『太陽』 1897年 8月 5日 第3巻 第16号 pp.125~126
- 棚橋絢子 「主婦の任」, 『太陽』, 1897年 10月 20日 第3巻 第21号 pp.120~121
- 塚本浜子 「婦人の勤儉と其母親」, 『太陽』 1896年 3月 20日 第2巻 第6号 pp.219~220
- _____ 「家庭教育は一大協同事業」, 『太陽』 1896年 10月 5日 第2巻 第20号 pp.96~97
- 藤井淡海 「小児の養鶏」, 『太陽』 1896年 1月 20日 第2巻 第2号 pp.135
- 三島通良 「幼児衛生の一節」, 『太陽』 1898年 1月 1日 第4巻 第1号 pp. 162~163
- 向井いく 「泰西家庭教育」, 『太陽』 1898年 1月 20日 第4巻 第2号 pp.159~160
- _____ 「家庭教育」, 『太陽』 1898年 2月 20日 第4巻 第4号 P.133
- 作者未詳 「料理の工夫」, 『太陽』 1896年 10月 20日 第2巻 第20号 pp.105~106

要 旨

本研究は近代家庭という概念が登場した明治20年代の中頃、家庭イデオロギーが台頭し、女性の役割が‘家庭’というフレームに固定され、理想的な近代女性のイメージとして定着する過程を総合雑誌『太陽』の家庭欄の言説を通し考察した。特に家庭というフレームの中で近代国家が志向する母親の役割にポイントを当て集中的に研究した。

近代国家が求めた母親の役割は日清戦争以後、将来、国家の臣民となる子どもを養育する近代的賢母の役割が強調された。その役割に関して具体的に提示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衛生管理に関する母親の役割である。近代日本の医療制度は自由開業と営利性を原則とした開業医制度を基盤として発展したのであるから、営利を生まない衛生よりも治療に重点が置かれざるをえない。したがって、家庭の中で衛生管理は母の重要な役割で与えられ定着し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

第二に、家庭教育の担い手としての母親である。子どもの教育が「家」の子どもや村の子どもという観点からではなく、国家の子どもという視点からとらえられて、家族での教育の担い手として、母親が重視された。

第三に、主婦としての母親である。家庭とは西欧化を目指したので、近代には男女性別役割分業が規範化されて女性が家事を担うことは固定化された。すなわち、家庭は主婦を中心として存在した。主婦の仕事が具体的に細かく描かれるようになって、『太陽』にも料理や洗濯などの実用的な記事が掲載された。

明治維新以降政府が、近代国民国家を形成するため、社会的・文化的に様々な制度と規律を作り、再編成しつつ当時の権力メカニズムがメディアを媒介として一つの社会的表象を作り上げたと考える。その中で家庭は近代の母親の役割に対するイメージを作り出す場として活用された。

キーワード：近代国家、メディア、太陽、家庭、母親、衛生、教育、主婦

투 고 : 2013. 2. 28
1차 심사 : 2013. 3. 16
2차 심사 : 2013. 4. 6